

철도청 산하병원 간호원 촉탁제도에 대한 경과

시청 간호사업계장으로 계신 김아덕씨는 철도청산하 각 병원의 간호원 직제가 공무원에서 촉탁제도로 변경 된다는 정보를 접수코 이를 보사부 간호사업과장께 알렸다.

이 정보로 공무원 간호직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서울시지부에 알려졌으므로 서울시지부 상무 한추지씨와 시간호사업 계장으로 계신 김아덕씨 두분이 철도병원 간호원장를 방문하고 간호원장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자세히 듣고 다시 황과장을 방문 선후책을 의논하였다.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을 아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인자격으로 황영희, 김아덕, 이성옥, 윤수복씨 등이 철도병원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철도병원 송원장으로 부터 청취했다.

철도병원 운영을 위해 첫째 공무원 대우로는 의사에 채용이 곤란하여 의사들에게 촉탁제도를 적용시킬 생각이며 둘째 채용절차의 원활과 좋은 인재들 등용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이를 1년전 부터 계획하여 왔었으나 간호원들에 대하여는 내자신이 그런 계획을 한 일은 없으며 혹 다른 사람이 그런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간호원들을 촉탁으로 하는데 대한 처우문제는 기밀에 속하므로 말할 수 없고 혹 이 문제가 추진되더라도 이 계획에 대하여 몇몇 간호원들만이 반대할 줄 믿는다. 라는 말씀이었다. 이상의 타진결과로 보아 반드시 어떤 계획이 진행중인듯 하므로 만일 上記 계획이 표면화 될 때 본 협회로서 어떤 태도가 정해져야 겠으므로 6월 2일 경제복지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 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는,

첫째 본 협회로서는 간호원이 일시적 경제사정 완화책으로 촉탁제와 같은 정규 직원이 아닌 임시조치를 받고 싶지 않으며 간호원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할 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여 언연한 국가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며 본 회로서는 공무원 간호직이 촉탁제로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둘째 공식적인 대표를 철도청과 교동부에 파견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6월 8일 이사회에서는 촉탁제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제 요로에 제출하기로 하고 6월 15일자로 다음 각 부처 (교통부, 철도청, 문교부, 보사부, 총무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건 의 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조국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귀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삼가 아뢰올 말씀은,

우리 간호원들이 주어진 일무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사회적 인정과 이를 뒷받침 하는 물질적; 정신적 대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고로 저희들은 의료요원을 위한 특정 직제가 정부의 시책으로 하루 속히 책정되기를 갈망하여 왔읍니다.

그러던중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일시 변법으로써 간호원들을 일반 공무원 직을 떠나 別定職(촉탁제)으로 할 계획을 한다 하며 그 주요목적은 대우개선이고 그외에도 좋은 장점을 겸한 방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직접 국가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저희 회원들은 정규 국가 공무원으로의 긍지를 자랑으로 삼고 지나던바 물질적 대우가 어느정도 개선된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지 않는 어떤 직제도 현 공무원으로 있는 간호원들이나 본 협회 전 회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자로서의 특징적이 제정되기 까지 현 제도의 공무원 신분으로 머물러있을 것을 요망합니다.

더욱이 수십명을 대표하여 행정하는 간호과장을 촉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간호행정 기능의 마비를 초래 할 것이므로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던지 간호직 공무원을 촉탁으로 하려는 계획이 상정 될 때에는 이는 간호원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양찰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5,000여 회원을 대표하여 바라는 바입니다.

서기 1965년 6월 15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회장 홍 신 영

건의서를 15일에 제출한 결과 6월 16일 교통부장관 비서로부터 간호원들은 촉탁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화 설명이 있었으며 수일내로 교통부장관의 공식 회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30일 불행한 소식은 꼬리를 물고 달려왔다. 철도병원 간호원장의 전화는 전 간호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철도청산하 간호원, 약사, 의사가 6월 30일자로 촉탁직이 철도청장의 훈령으로 공포됐다는 보고였다.

7월 1일 오전중으로 본 회에서는 교통부장관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은 부재중 만날 수가 없었고 비서의 답변은 철도청 소관이라 단정하고 철도청에 건의서를 위임하였으니 철도청으로 가 보도록 권유를 받았다. 다시 철도청을 방문하였으나 청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획관리과 직원을 만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관리과 직원의 말은 의료직원 전원을 축탁제로 바꾸었다는 것과 일전 협회가 찾아와 우리의 의사를 들은 후 이일을 추진할 때 간호원들의 의사를 들어 보았느냐 라는 질문의 답을 회피하면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느냐의 질문에 의 사 : 20,000~30,000원

간호원 : 간호원장 : 8,200원~10,000원

일반간호원 : 500~300원 정도 와 100원 인상된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로 사태의 긴급함을 깨닫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였다.

간호직 축탁문제가 철도청 산하 병원에 국한 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식대표를 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총무처장관, 보사부 장관을 방문하여 본 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당국의 의견도 청취 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철도병원에서 오는 소식은 현재 철도병원 간호원들이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이 분개한 중요 원인은 배우에 있어 의사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불만이었다.

본 회의 우려는 간호원 봉급 문제도 문제이지만 만일 공무원 간호직이 축탁직으로 되는 경우 사표 없이도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으며, 3급 이하의 공무원은 부령으로 병원장 임의로 임명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 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던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본 말수 있다는 결론이나와 철도병원 간호원들이 축탁제를 반대하던 찬성하던 협회가 제출한 건의서를 관철하기로 했다.

7월 6일 철도병원에서는 오후 6시까지 전체간호원들의 사표를 강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회의는 긴급으로 시내 종합병원 간호원장과 서울시지부 이사 합석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회회에서 결의는 배우여하를 막론하고 축탁제를 반대한다는 것과 반대운동을 위해서는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지지한다는 결의였다. 철도병원 간호원들 보교로써 간호원장 이하 전 간호원들이 병원측 강요에 못견디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에서는 벌써 모두 사표가 수리 되었다는 것이다. 동일 오후 본회 이사와 서울시지부 이사

가 합동으로 장시간 이 문제를 토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철도청 산하 간호원 축탁계 문제가 전 국공립기관에 파급 될 우려가 있어 이 문제를 여론화하여 사전에 저지키로 하다.
 2. 그 방법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기사를 기재토록 하다.
 3.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계요로에 제출키로 하다.
- 7월 10일 진정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에 보내다.

진 정 서

국가다사한 공무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삼가 표하나이다.

더욱 국가경제부흥을 위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여타 지도자들의 노심고투를 감격하는 바입니다.

금번 저희들 대한간호원협회는 최근에 발생된 일부 회원의 직장문제에 관하여 특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회우들에 직접적 연관성을 염려하여 심각한 관심은 물론 이는 비영리기관에서 간호의 본분을 완수하려는 희생과 봉사의 전문직분을 불이해한 최악의 처사라고 개탄하여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차후 여하한 일방적인 인권박탈 및 정신적 공무방해가 없을 보장을 요구하여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외 한편 죄송하며 슬픔을 글하기 어려움을 표하나이다.

1965년 6월초 서울 철도병원에서는 의사의 대우개선을 위해 공무원직에서 축탁과 같은 신분으로 옮기는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듣고 간호원들도 범이 제정한 의료요원이라는 공칭에 의해 간호원도 포함된 듯 알려져 본 협회 일부 이 사들이 원장을 방문하고 사실내용을 알아본 결과 「기관의 사업발전을 위해 의사의 대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수년간 上部에 折衷中인 것을 인정하던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예산상 간호원들의 문제는 등장시키기 곤란하여 2차적 계획으로 노력하려는 소신」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어서 직원 간호원들에게는 「왜 이런 원내문제를 외부로 퍼져 복잡하게 하느냐 이는 2급비밀에 속하는 것 임으로 漏說者를 索出하면 罷免措置를 取할것」이라고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수일이 지나 당국자는 직원 간호원들에게 간호원이 공무원 직분을 떠나 축탁(당시용어)이 된다고 할 경우 아패와 같이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① 대우개선(현재보다 월등한 차로 增額)
- ② 공무원 임용 사무의 간소화(任退處理 迅速은 人員交替에 도움이 됨)

③ 일반공무원 임용시험 면제 (기술자로의 응시 불편 解消)

등등을 설명하고 만일 간호원에게도 금반 적용한다면 有利한 것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간호협회는 6월 15일자로 建議書를 關係要路에 提出하여 本會로써는,

1. 간호원은 대우개선을 주르한 여하한 댓가로도 공무원의 신분을 변하고 싶지 않다.

2. 現公務員들의 대우개선이 될 때까지 또는 의료요원 전체가 특정직 공무원(본인들의 숙원인 예를 들어 국가 교육공무원직과 같은) 제도가 될 때까지 생활고를 감수하겠다 라는 의사표시와 더욱 친히 방문까지 하여 공무원 간호원으로서의 혹 불편이 있다해도 오히려 새로 알려진 제도를 거부한다고 간청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日 돌연 사태는 악화되어 동병원 간호원은 근무시간중 전원 강당에 집합을 지시 받아

① 公務員職을 依願辭退해야 하는 사정과 아울러 6月末日字로 사직원 제출권유.

② 依願辭表提出者는 7月 1日付로 촉탁발령 할 것임.

③ 依願辭表 未提出者는 공무원으로서의 종전신분을 약속 할 수 없음.

등등 장시간 동안 환자를 떠나 강당에서 책임자로 부터 說誘, 권고 및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꾸두설명으로 알려진 대우개선의 내용은 일반간호원들은 다대수가 16원에서 200원 정도 上級간호원에게는 45원에서 500원 정도 (但 간호원장은 1,000여원 정도 연이어 다수 하급자는 당분간은 약간의 감액사실도 있으며 급변 개선 實額은 만족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차후 가일층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以上 경과를 알게된 본 협회는 책임자를 공식방문하여 사실에 抗議했고 본 내용을 철도청장에게 직접 진정코저 했으나 면접을 거부했으므로 기회를 얻지 못했나이다.

7月 5日 사표는 가일층 강요되어(관계 당국자는 간호원 책임자에게 만일 일반간호원들이 이 사표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올 혹 공무원직에서 해임되는 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추궁등으로 協力을 재요청받는 등) 本 協會는 다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중 7月 6日은 오후 6시까지 사표제출 최종기간을 알리고 위와 같은 혹 일어날지 모를 차후 사태를 거듭 역설 받아 一部 당사자들은 提出하고 一部는 강경히 抗拒하고 있어 市内 綜合病院 간호원장 會가 개최되었고

① 本事態를 白紙化 하라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이 획득한 공무원 신분은 아무 댓가로도 변경을 요청 받을 수 없다.

以上 全員決議와 아울러 市看護會임시총회 소집요청까지 있으나 이 점은 일시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傳聞된 바에 의하면 부산철도병원에서는 권유에 의한 사포라고 간호원들이 제출하여 당국자는 이를 반퍼하고 依願請式을 가르켜주어 다시 제출케 하는등 사태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협회자신을 소개하오면 국가 의료법에 의한 중앙의 동업자 회로서 여성전문사업가의 가장오랜 역사와 8,000여 회원을 자랑하는 단체로서 1949년 국내 최초로 국제회에 정회원으로 加入함에 성공 現在國內 교육수준도 정규 대학 수여자들 1958년부터 그리고 현재로 4個所 대학교육과 19개소의 초급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을 거치는 향상을 邇해 임상뿐 더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의 활동전개를 보게 됨은 국가와 사회의 후원과 지도로 알아 항상 감사하면서 有故時와 平常時 국가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보건의 담당 일선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간호원이 전지나 사회기관에서 근무 할 때에는 환자는 물론 그 기관의 시설 물자(기구 약품등) 등과 기타 기관의 경비등 24시간 저의들 의무에 전적으로 포함되며 즉 간호원은 가정주부의 요책만을 전문화 시킨것인 만큼 그 임무의 완수와 신분의 위치는 또한 절대적인 관련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本協會의 結議된 內容을 거듭 陳情하옵니다.

① 국가기관의 간호원 신분상 위치는 절대 중요하므로 정식 공무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사정 또는 代價로도 바꿀 수 없다. (병원에 공무원 제도가 있는 한)

② 금번 발생한 철도칭 산하 기관간호원들의 사건을 즉시 백지화 함은 물론 무단 인권박탈을 시도한 관계직원 또는 당국은 此後 여하한 위협이 재발되지 없이 保障하라. 以上の 그 目的이 관철될때 까지 우리 회원 일동은 자숙하고 반성하며 더욱 임무에 충실 할것과 법이 제정한 의료요원이 특정적이 될때까지 현 공무원 보수를 감수하는 것과 해방후 날로 발전한 우리 회원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한층 더 국민보건에 이바지 하도록 확인하고 이에 공개하나다.

위에 내용은 귀하의 공적 및 인간적 관심과 이해를 입어 조속한 시일내에 만족할만한 회복이 이루어 질것과 또한 귀하의 이렇듯한 성원을 邇해 간호원과 간호사업이 국민보건에 加一層 도움을 주게 될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1965년 7월 7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사 일동

이러 7월 7일 동아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취급 했고 조선일보 사회면 특기사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같이 진정서를 각 부처에 제출했으나 철도청에서는 공무원 간호직을 축락제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회신이 없으므로 부득히 본 협회는 최후로 7월 14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성명서

이번 철도청 산하기관의 간호원 신분문제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크게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전국 간호원 9,000여명과 조산원 6,000여명이 총 집합체로써 간호원의 과반수는 조산원의 자격을 겸하고 있다.

현재 4개의 대학과정과 19개의 초급대학 이상 과정을 통하여 드로펜스 나이팅겐의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사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전문직업 여성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방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아 1949년에는 국제간호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보았다. 이번에 철도청 산하 병원에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 별표에 의거하여 엄연히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간호원들을 청장훈령으로 강제 의원 사직케해서 축락으로 만든다는 것은 행정법 제정서를 문란케 하는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병원장과 서무직원만을 유독그대로 공무원으로 둔다는 것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는 처사인지 극히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어 본회는 지난 6월 15일에 당국에 진의서를 제출하고 7월 8일에는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내어 간호전문직업에 대한 의식이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을 호소한 바가 있다.

병원에서의 간호원은 환자의 전인적간호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병원의 시설 및 물품관리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정에 있어서의 주부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국의 처사가 간호원의 중요한 직업적 위치를 바꾸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축락으로 만들려함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원을 몰각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각개 지회를 포함한 전국간호원 조산원을 대표하여 지속반성으로 본분을 강화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들어 당국의 이해와 국민의

성원으로써 여성의 전문직업을 육성시켜 국민보건에 더욱 성과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① 우리는 세계인도 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전문직업여성인것을 밝힌다.

② 우리의 사명은 병자 및 부상자의 간호, 질병의 예방, 고통의 경감, 조속한 회복 및 나아가서는 건강의 증진과 유지불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대우가 요구된다.

③ 간호원은 환자의 보호자요 대변인이며 병원시설 및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이를 완수할 수 있는 신분상 보장과 제도상의 확고한 뒷 받침을 요구한다.

④ 우리의 임무는 병원사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간호원의 발언이 운영당국에 직접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면 환자에게는 간호원이 어떤 다른 어느 직원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此際에 병원에는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를 버리고 간호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말소해 주기 바란다.

서기 1965년 7월 13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서울특별시 간호원장회

위와같은 성명서를 부득히 신문지상에 발표하게 되었다. 7월 21日 본 회에서 제출한 진정서가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회에 상정되어 이 문제는 여성전반에 관한 권익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논의되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활란박사 명의로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내었다.

7월 26日 청와대 비서실로 부터 급번 간호원 직제만은 공무원 신분에서 변동이 없고 종전과 같이 공무원직 간호원으로 있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후 서울철도병원 간호원들의 사표는 반환되어 어느정도 문제의 해결을 본듯하여 철도병원 간호원들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용기와 힘을 주었으며, 부산, 경남 양지부에 철도병원 산하기관 간호원들의 사표도 반환 받도록 노력하라는 장거리 전화를 냈다.

26일 이사회에서는 철도청장에게 이번 간호원 직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간호원의 직제가 종전과 같이 공무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귀청의 편달과 성원에 기인된 것으로 알아 감사한다는 내

용의 공문을 보냈고, 철도청문제 뒷처리 수습을 위해 본회 상임이사 김복음 씨는 부산 및 마산 철도병원을 순방하고 30日 귀경하였다. 그후 간호원들의 사표는 개인들에게 전부 돌려졌다.

결론으로 금번 철도청산하병원 간호원들의 촉탁제문제로 2개월의 절친 투쟁으로 당국과 회에 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감언이설로 사표를 강요 제출했던 간호원들의 사표를 반환 하였으며 관계당국으로부터 공무원직 T. O. 를 없애지 않겠다는 언질을 얻게 된 것은 실로 큰수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직 간호원으로 다시 환원되었다하여 만족 할 것이 아니라 왜 봉급의 인상도 없이 촉탁제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이유만 보드라도,

- ① 임용절차 간소화
- ② 자격자 채용
- ③ 신진대사의 필요성
- ④ 대우개선

등이 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사실로 보아 대우개선이란 말은 허위였음이 분명했고 언연중에 내포된 이유로는 간호원의 근무태만, 실력부족, 기혼자들의 인사문제 등이 포함되었던 것을 미루어 인사권을 원장이 쥐고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하기 위한 소치라 하겠다.

이런점에서 볼 때 직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평소에 그 일하는 장소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특히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사표가 반환되었다고, 간호원 T. O. 를 그냥둔다고 우리는 안심 할 것이 아니고 더욱 노력하여 전간호원들이 다시 한번 반성 할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편집부 제공】

육 아 와 간 호

(구 소아간호)

Gladrs Sellev }
Mervy F. Peppev } 공저

홍 옥 순 역

값 { 일반가 300 원
학생가 210 원

반양장·모조·국판.

<대한간호협회출판부발행>